

우성농역 30년만에 돼지 도축 중단

-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시작, 도매기능은 계속 수행

각종 민원으로 인해 서울시내의 3개 도축장들이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는 등 축산물 도매시장에 큰 변화가 닥치고 있다. 가락동 축협 공판장의 경우 내년(99년) 말까지만 도축업무를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부천공판장으로 그 업무를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독산동 태강산업의 경우도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오는 10월경 도축중단설이 나돌고 있고, 도축업무를 중단한 후 부분육 도매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한동안 모색되었으나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이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상인연합회 측은 태강산업의 기능중단에 따른 대책마련을 호소하고는 있으나, 한동안 상당수의 상인들이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변 가까이 대형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크게 들어선 마장동의 우성농역은 지난 3월 26일부로 도축업무를 중단하면서 이곳 우성농역을 중심으로 터전을 잡고 도·소매 사업을 하던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사업자 점포들이 술렁이고 있다.

또한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이곳 종사자 및 상시직원의 일자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이곳 중매인 역시 실적 및 이직상태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성농역의 도축작업 중지는 소, 돼지 구매시 좌표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3대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성농역의 지난 1월 돼지지육 공급물량은 2만

3천9백71두였으며, 이 물량은 전국 도축두수 1백2만3천두의 2.34%이며, 전국 13개 도매시장 공급량 25만 4천두의 9.4%, 서울 3대 도매시장 공급량 10만3천두의 23.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성농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마장동 식육시장 전체의 육류공급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게 식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0년 이상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심축이었던 우성농역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8번지에 위치해 수도권 축산물 공급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했던 우성농역은 지난 60년대 초반, 그 이전부터 형성돼 있었던 우시장과 시립도축장을 떠안아 여기에 69년부터 도매시장 기능을 더해 80년대 중반 서울 가락동 축공과 독산동의 태강산업이 도축에 나서기 전까지 수도권 축산물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우성농역은 한때는 소 2백50두, 돼지 2천두~2천5백두를 도축할때도 있었으나 이 지역 도심화의 진전으로 소, 돼지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세가 위축되기 시작해 최근 2, 3년전부터는 소 60~70두, 돼지 7백~8백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성농역은 갈수록 사세가 위축되기 시작해 적자상태에 이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고려가스 와 7대3 합작으로 도축장 바로 앞에 1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지난 4월 중순 이후 입주

가 시작 되기전 3월 26일부로 도축업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성농역의 도축중단 이후에 급속도로 도매시장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소의 경우에는 도축중단 이전보다 2배가량 지육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돼지의 경우는 도축중단후 중매인들의 반발로 인해 한달여 동안 지육경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29일부로 경매가 재개되어 1일 평균 60~70두가 경매되고 있으며 경매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성농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천, 홍성, 포천 등지의 산지도축장에서 지육이 반입되고 있으며, 안양 등지에서도 반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소의 경우에도 도축중단 전보다 2배 가까이 지육이 경매되고 있는 만큼 돼지도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예전의 7백~8백두로 경매두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돼지지육 경매의 경우 소량에 불과하지만 축공과 태강보다는 비육돈 경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성농역의 도축중단이 야기시킨 현상

우성농역의 도축중단은 축공과 태강산업, 인천 삼성식품 등의 도축물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우성농역으로 출하하던 수도권 지역 등의 일부 농가들이 출하선을 변경함에 따라 지역 도축장과 육가공업체들의 원료돈 구매를 다소 수월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경우 경매대금 지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동안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형성시 3대 도매시장 지육가는 태강산업이 가장 높고, 축협공판장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 우성이 중간추 역할을 해 왔는데, 우성농역이 도축을 중단함에 따라 2개 도매시장의 대표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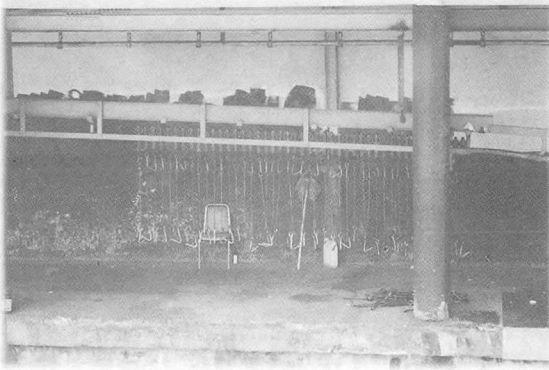
▲마장동 시장 상인들이 입주민들의 현대아파트 입주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가 제기되게 되었다.

이는 전국의 6개 도매시장 즉 축협 서울 공판장, 태강산업(서울), 태강산업(부산), 동원산업(부산), 신흥산업(대구), 삼호축산(광주)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편차가 적은 방향으로 지육가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의 육가공업체와 인구비례로 서울 및 수도권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통계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등 전국 육류수급을 주도하는 서울 2개 도매시장과 인천의 삼성식품을 그 기준가격으로 정하자는 생산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기준가를 찾기 위한 조사를



▲마장동 우성농역 바로 뒤로 들어선 현대아파트가 보인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 3월 26일 도축중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돼지·소 지육이 가득차 있었지만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육반입시에만 이용된다.

계속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서울 2개 도매시장 평균 지육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자는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인 만큼 계속적인 협의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시장 기능은 존속될 것으로 기대 돼

최근 경기도 안성에 선진국 수준의 대규모 축



▲우성농역 도축장 바로 뒤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 완료되면 이 지역 도매 시장 기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산물종합처리장이 신설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형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올해안에 3개소, 99년 말까지 총 10개소를 전국단위로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을 가지

고 있는 등 이 시설들이 모두 준공이 되면 현재의 도매시장 기능을 상당히 흡수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도매시장은 기능면에서 상당히 그 운신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기능보다는 다소 그 기능이 축소할 것은 확실하지만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다 완성되어 가동된다 하더라도 전국 육류유통량의 30~40%의 비중만을 차지할 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의 도매시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여 일반 도매시장의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의 이전 및 폐쇄 등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해도 그 기능은 존속되고 있어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유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대화된 육류공급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

우성농역의 도축중단은 주변 상인들과 중매인들의 반대시위 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지역적인 여건과 사업자의 의지, 정부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마장동 도매시장의 도축중단, 폐업은 물론 서울시내 축산물 도매시장 전체의 운명이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마장동 우성농역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육류의 위생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현대화된 육류공급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라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우성농역의 도축업무 중단이 일시적으로 서울지역에 출하했던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애로사항으로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 및 수도권의 육류 수급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취재 : 이병석> **養豚**